해석된 목마름

(요7:37~53)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된 목마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해석된 목마름'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본래의 우리 속에 있는 목마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제목의 등장이 가능하게 된 거지요.
우리 속에 지금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 목마름을 해석된 상태로만 느낍니다.
해석되지 않은 채로 목마름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석된 목마름이 그릇 해석된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 목마름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즉 초막절을 7일 보내고 8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초막절을 진행하는 7일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제단의 서편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사막 한 가운데서 곳곳에서 생수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 서편에 붓는 일을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그 물을 길어다가 부었던 그 사건을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느냐,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여기서 목마름의 단서가 없습니다.
왜 이 단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주님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럴 때 이 목마름이 육체의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가 목마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 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 단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목이 마릅니다.
만학의 길을 걷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배움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한참 배워야 될 나이에 집안의 사정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낸 뒤에 너무너무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만학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단서가 있다는 얘기에요.
또, 이성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 가는데 애인 한번 사귀어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지병으로 10년째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간절한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업가가 도무지 운영자금이 씨가 말라갑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마름이라는 것은 구체적이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으시고 그냥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 말씀 속에는 진짜 목마름을 우리가 우선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목마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들, 돈에 목마르다, 배움에 목마르다,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속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움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사업가가 돌릴 수 있는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목마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원래 목마름이 있는데, 그 사업가는 그 목마름을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저씨한테 원래 목마름이 있는데 이 아저씨는 자기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릇 해석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27세가 되었는데도 이성과 사랑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의 목마름은 이성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그 아가씨 속에 목마름이 있는데, 그 아가씨가 그 목마름을 이성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릇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마름이라고 하신 그 목마름을 찾아내야 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목이 마르니 내게로 오라'는 말씀과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어법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마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 목마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잘못된 해석이겠지만 내가 건강에 목마르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또, 돈에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아니면 성공이나 승진에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돈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금년에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승진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승진해야만 행복하다면 승진의 힘을 믿는 거죠, 승진의 능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있어야만 된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돈, 돈 하면 돈을 믿는 거고, 돈의 힘을 믿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잘살 수 있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거니까.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먹는 겁니다.
내가 먹는다는 것은 내가 같이 주님의 죽음이 내 마음 안에 퍼져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내 마음의 손이 무엇인가 덥석 붙잡으려 할 때 내 손이 못 박혔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려고 할 때 내 발이 못 박혔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마음에 소원을 갖게 될 때 내 배에 창이 들어와 소원할 수 있는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릇 해석된 목마름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내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랐는데, 예수님께 나와 바르게 믿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먹게 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는데, 내 몸, 육체에 대해서도 죽게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 운영할 수 있는 돈에 대한 목마름도 죽게 됩니다.
승진에 대해서도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주님을 믿게 되면 그릇 해석된 모든 목마름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하면,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라는 얘기에요.
세상을 향해 있던 내가 세상을 등지게 되고, 세상에 대해 죽게 되고, 그 죽게 된 세상 속에 내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대상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말라 했던 것들에 대해 다 죽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이때, 진짜 목마름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지금 있는 본래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속에 있던 목마름, 내가 하나님에 의해 피조 된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그 본래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본래의 목마름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본래의 목마름을 우리는 전부 그릇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잔뜩 화가 나있습니다, 분기탱천 하는데 눈앞에 아내가 보입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화풀이를 해댑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자식이 보이면 '이 자식아!' 하고 찰싹 뒤통수를 때리면서, '공부 안 해?'
화가 다른 데서 나서 화난 마음을 자식에게 분풀이해버리고, 전봇대가 보이면 전봇대를 발로 뻥 차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화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이 목마름을 그릇 해석하는가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생긴 목마름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의 방향을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목마른 건데 세상을 향해 보다보니 내 상황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목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목마름인데, 세상을 살다보니까 내가 배우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목마름으로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목마름인데, 이렇게 살다보니까 다른 여자들 다 결혼했는데 나는 서른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돼서 내가 목마르다고 오해해버립니다.
원래 인간은 결혼에 목마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에 목마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배움이 없다고 목마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상태에서 연애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 안 해도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목마름을 갖고 만나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자가 하는 것이 사랑이도록 정해놓았다 이겁니다.
근데 마귀가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목말라 하도록 오해하는 거예요, 그릇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그때 비로소 진짜 내 속에 있는 목마름이 뭔지, '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목이 마르고 있었구나!' 하고 목마름을 찾게 되고, 그 목마름을 찾은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얼 하신다는 걸까요?
느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천국에 대한 느낌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느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서울에서 매연 마시면서 복잡하게 살다가 강릉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릉을 찾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로 두 시간 반이면 오니까.
경포, 송정이나 안목 바닷가에 서면 정말 동해 바닷물이 깨끗합니다.
새파란 물에 하얀 파도가 밀려오면서 나를 반겨줍니다.
산책하러 바닷가에 나가서 우두커니 바라보면 아가씨들은 팔짝팔짝 뛰고 사내아이들은 뛰어다니면서 놀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 바다를 보면 느낌이 오니까.
시원한 느낌, 탁 트인 느낌, 서울에서 갖고 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시원한 겁니다.

마찬가지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릇 해석된 목마름의 망상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리에 서게 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과 천국을 내 마음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살다가 강릉 동해바다를 볼 때 탁 트인 느낌에 환호성이 절로 나올 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천국을 느끼게 될 때 어떤 환호성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목마름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동해바다와 천국을 비교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천국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이 천국을 보고 만지고 마주대하고 있는 느낌 속에서 살아갈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마음으로 노처녀로 살아갑니다, 노처녀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 마음으로 풍전등화에 있는 사업장으로 나갑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환해요,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말씀의 요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상상이 가는 게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결별했을 때 어땠을지.
아담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몸으로 이 세상을 감지하며 살아갑니다, 몸의 5감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의 5감관을 하나씩 죽여 버려요, 가상으로.
시력을 죽입니다, 청각을 죽입니다, 촉각을 죽입니다, 그리고 후각을 죽입니다.
몸은 살아있어요, 몸에서 감각만 죽인 거예요.
이때 이 무감각의 암흑 속에 갇혀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게 힘이 가해졌는데 그 힘을 느낄 수도 없고, 힘을 가하는 자를 볼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들을 수도 없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던 아담에게 사망선고가 내려집니다.
분명히 그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가 없도록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미칠 필요 없어, 마음을 육체 쪽으로 돌려서 육체의 5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면 돼!'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돌렸고 세상을 느끼면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향하여 그릇된 목마름의 해석을 해가면서, 그것을 마시겠다고 추구해가는 것이 죄악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목마름에 대한 그릇된 해석, 이게 바로 죄요, 원죄의 힘입니다.

이 원죄의 힘이 어떻게 부서집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하여 죽어서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있었던 본래 목마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비록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건강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사랑과 배움에 목말라 할 때,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만을 목말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세상에 목말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돈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했는데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상태에서 돈 벌러 나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상태에서 연애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상태에서 직장생활 합니다.

이게 바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요청 속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릇된 목마름의 망상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먹는 참 믿음을 통하여 본래의 목마름을 회복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천국과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